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원전 건설 및 보유를 둘러싼 공방

- 일본의 지진과 원전 방사선 물질 누출은 경제적으로는 산업생산의 부분적인 차질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원전 건설이 최고의 쟁점 사안으로 거론되는 모습임.
  - 실물경제에서는 주요 생산 부품이 지진으로 인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, 금융시장에서는 엔화의 초강세와 상대적인 달러의 강세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가는 연일 하락하는 모습임.
  - 정치적으로는 EU가 일본의 대지진을 계기로 유럽 내 원전에 대해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자고 제기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유로지역의 원전 보유 및 건설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한 모습임.
    - IAEA가 참가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토론이 가속될 예정이지만 향후 유럽 국가들의 원전 건설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13개 유로회원국들의 원전 건설 반대를 무릅써야 할 것으로 예상됨.
- 독일 등은 즉각적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등은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원전 건설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임.
  - 독일은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전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안전성 평가를 마치면서 이들에 대한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평가했고 독일의 17개 원전에 대한 사용 연장도 불가능 하다고 밝힘.
    - 스위스는 노후 원전을 대체하는 원전건설을 중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독일에 동조하였고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의 주장에 동참함.
  - 프랑스는 전력의 75%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도 원전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원전 건설은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, 이탈리아와 폴란드도 원전 건설을 계속하겠다고 밝힘.
  - 크로아시아와 공동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영국은 서둘러 원전사업을 폐기하는 판단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, 가장 공격적으로 원전건설에 임하는 체코는 250억달러를 원전건설에 투입하겠다고 밝혔고, 터키는 지진규모 8~9에 견딜수 있도록 원전을 건설하기 있기 때문에 200억달러 규모의 원전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.
 

(Wall Street Journal 3/16)